

수능 국어 분석의 시작
문학 · 독서 · 문법 기본서

홀로 공부하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

BASIC

홀수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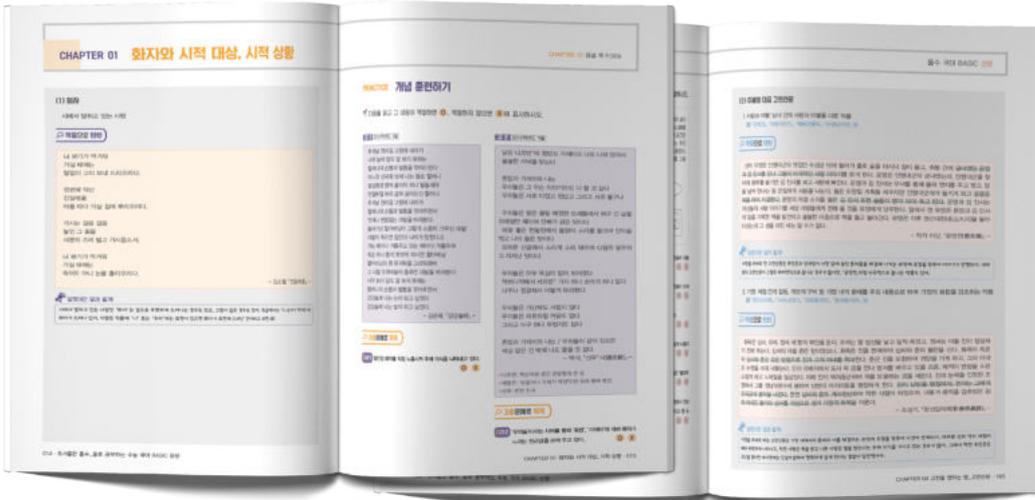
B A S I C

|문제

출수 국어 BASIC 구성과 특징

- * 하나, 『출수 공부하는 수능 국어 BASIC』은 본격적인 기출 분석에 앞서 필수적인 개념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한 수능 국어 기본서입니다.
- * 둘, 고1, 고2 교육청 기출에서부터 고3 평가원 기출의 순서로 문제를 제시하여, 운문/산문/독서/문법 각 영역 별로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빈틈없는 개념 학습이 가능합니다.

출수 국어 BASIC <문학(운문, 산문)>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문학 개념어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예시 작품을 통해 개념어의 정의와 선지에서의 판단 기준을 익히고,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적용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끼는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은 별도의 CHAPTER로 구성하여 필수 개념, 주제별 대표 작품 등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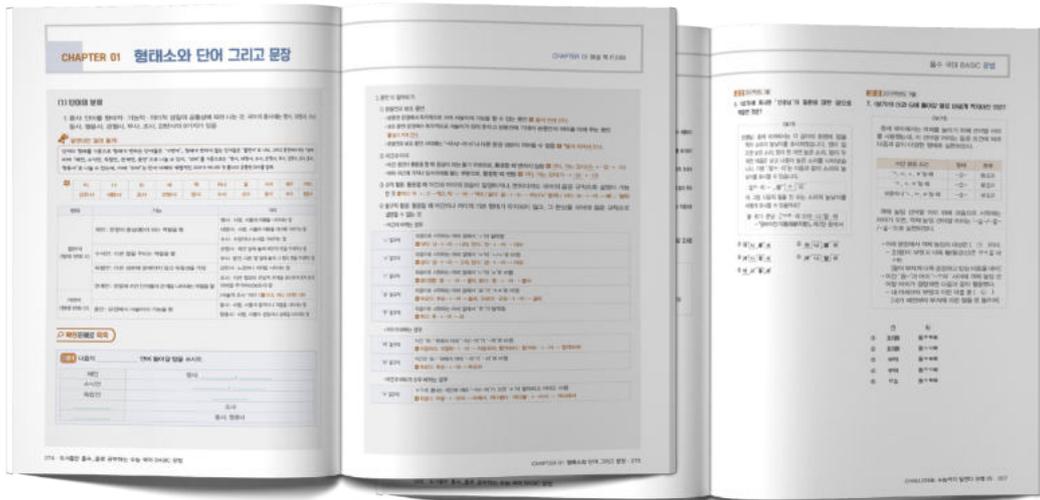
출수 국어 BASIC <독서>



글의 기본 단위인 문장 읽기에서부터 문단 읽기, 지문 읽기에 이르는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 독해 기본기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독해 TIP과 바람직한 독해 방법을 안내하고, 기출에서 선별한 지문으로 적용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지문을 기반으로 한 반복 훈련을 통해 선지의 구성 원리와 출제 경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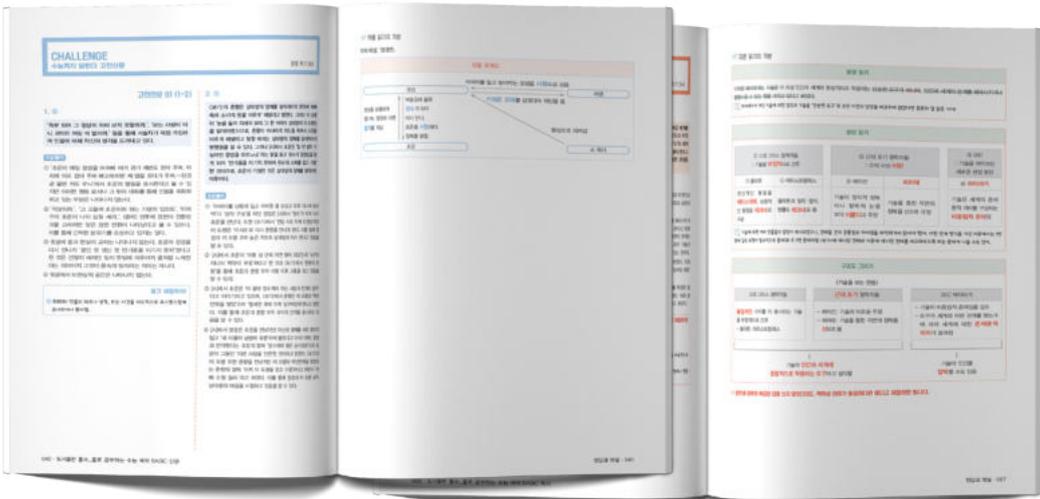
- * 셋, 영역별로 첫머리에 학습 순서와 방향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시하였으며, 4주 완성 학습 PLAN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넷, 학습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분권하였습니다.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나란히 두고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흡수 국어 BASIC <문법>



수능 국어 문법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핵심 개념을 다섯 개의 CHAPTER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예문과 보충 설명을 통해 수능 국어 문법의 전체적인 틀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CHAPTER마다 학년별 대표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학습한 개념을 문제에 바로 적용하며 체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흡수 국어 BASIC <정답과 해설>



문제에 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작품 읽기의 기본', '지문 읽기의 기본'의 정답을 확인하며 작품 및 지문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고 채점하자!'에서는 추가로 알아 두면 좋을 만한 개념, 어휘, 문제 접근법 등을 소개하여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출수 국어 BASIC 목차

운문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01 화자와 시적 대상, 시적 상황	P.014	P.006
CHAPTER 02 운율과 이미지	P.024	P.007
CHAPTER 03 표현 및 시상 전개	P.036	P.008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현대시	P.076	P.011
CHAPTER 04 고전을 면하는 법_고전시가	P.090	P.018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고전시가	P.104	P.019

산문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01 인물과 갈등, 장면	P.114	P.026
CHAPTER 02 서술자와 시점	P.126	P.028
CHAPTER 03 서술 및 구성	P.138	P.029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현대산문	P.160	P.031
CHAPTER 04 고전을 면하는 법_고전산문	P.176	P.039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고전산문	P.188	P.040

독서

	문제 책	해설 책
STEP 01 문장 읽기	P.202	P.048
STEP 02 문단 읽기	P.208	P.052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지문 읽기	P.244	P.066

문법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01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문장	P.274	P.088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1	P.282	P.089
CHAPTER 02 음운과 음운의 변동	P.288	P.092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2	P.292	P.093
CHAPTER 03 문법 요소	P.298	P.097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3	P.304	P.098
CHAPTER 04 의미 관계와 중의성	P.310	P.102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4	P.314	P.103
CHAPTER 05 국어의 역사	P.320	P.106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5	P.324	P.107

부록

	문제 책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P.006
모평 및 학평 시행 일정	P.010
4주 완성 학습 PLAN	P.011

모평 및 학평 시행 일정

1·2학년

3학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4월

경기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11월

19일 (목)
대학수학능력시험

2021학년도 수능은 2020년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2020년에 시행되는 모평 및 학평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19년 11월 기준) 다만 모평 및 학평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으니,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2019년에 시행된 시험 일정을 참고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4주 완성 학습 PLAN

DAY	공부할 부분	문제 책 페이지	학습한 날짜
1	운문 CHAPTER 01 화자와 시적 대상, 시적 상황	P.014	
2	운문 CHAPTER 02 운율과 이미지	P.024	
3	운문 CHAPTER 03 표현 및 시상 전개 (1)~(6)	P.036	
4	운문 CHAPTER 03 표현 및 시상 전개 (7)~(11)	P.057	
5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현대시	P.076	
6	운문 CHAPTER 04 고전을 면하는 법_고전시가	P.090	
7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고전시가	P.104	
8	운문 전체 복습하기		
9	산문 CHAPTER 01 인물과 갈등, 장면	P.114	
10	산문 CHAPTER 02 서술자와 시점	P.126	
11	산문 CHAPTER 03 서술 및 구성	P.138	
12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현대산문	P.160	
13	산문 CHAPTER 04 고전을 면하는 법_고전산문	P.176	
14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고전산문	P.188	
15	산문 전체 복습하기		
16	독서 STEP 01 문장 읽기	P.202	
17	독서 STEP 02 문단 읽기 (1)~(2)	P.208	
18	독서 STEP 02 문단 읽기 (3)~(4)	P.224	
19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지문 읽기 01~03	P.244	
20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지문 읽기 04~06	P.254	
21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지문 읽기 07~09	P.264	
22	독서 전체 복습하기		
23	문법 CHAPTER 01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문장 +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1	P.274	
24	문법 CHAPTER 02 음운과 음운의 변동 +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2	P.288	
25	문법 CHAPTER 03 문법 요소 +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3	P.298	
26	문법 CHAPTER 04 의미 관계와 중의성 +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4	P.310	
27	문법 CHAPTER 05 국어의 역사 +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5	P.320	
28	문법 전체 복습하기		

문제 편

문 문

홀로 공부하는 수능 국어 BASIC

출수 국어 BASIC 운문 CHAPTER

작품으로 탄탄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작품으로 탄탄’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운문’ 영역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어를 정리해 두었어. ‘알맹이만 알려 줄게!’에는 개념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로 쉽고 친절한 보충 설명을 덧붙여 놓았지!

확인문제로 똑똑

Q02 일생(一生)에 시르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한평생의 _____ 너를 좇아 놀리라

Q03 가을 들 불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러
_____ 에 두어 소리 슬피 _____

Q04 꽃 디고 새 님 나니 녹음(綠陰)이 썰렸느디

자체 제작 문제인 ‘확인문제로 똑똑’과 고1, 고2 학평 및 고3 수능, 모평으로 구성된 ‘기출문제로 똑똑’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해 보자. ‘기출문제로 똑똑’은 고1 → 고2 → 고3 문제 순으로 제시해 두었는데, 각 개념어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모든 문제를 거뜰히 풀 수 있을 거야!

출수 국어 BASIC 운문 CHALLENGE

현대시 01 2017학년도 3월

(가)

산비알에 돌발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제재받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럽질도 시키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늘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굶고 터진 상처는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1.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CHALLENGE에서도 고1부터 고3까지의 기출 지문을 실어 두었고,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 하나, 작품의 내용에 대한 문제 하나 총 두 개의 대표 문제를 제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이때 지문을 읽고 ‘작품 읽기의 기본’의 빈칸을 먼저 채운 다음 문제를 푸는 순서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해! 왜냐하면 우리가 ‘운문’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문제를 맞혔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작품을 읽고 화자와 대상의 관계, 시적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지!

CHAPTER 01 화자와 시적 대상, 시적 상황

(1) 화자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작품으로 탄탄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알맹이만 알려 줄게!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 '화자'는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뒷글에서는 '나 보기가 역겨워'에 화자가 드러나 있지. 이렇듯 작품에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돼!

PRACTICE 개념 훈련하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에 표시하십시오.

고 1 2016학년도 3월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느덧 산국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
 팔십 평생 행여 풀여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을 바라본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밭
 대밭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
 가는 해마다 거름주고 오는 해마다 거름주며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할아버님
 할아버님의 흰 옷자락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바라본다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 김준태, 「강강술래」 -

기출문제로 쏙쏙

Q01 일인칭 화자를 직접 노출시켜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O X

고 2 2016학년도 9월

남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
 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착하다착해서 세관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백석, 「선우*사(膳友辭)」 -

*나조반: 책상처럼 생긴 장방형의 큰 상.

*세관은: '성질이나 기세가 역센'이란 뜻의 평복 방언.

*선우: 반찬 친구.

기출문제로 쏙쏙

Q02 '우리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흰밥', '가재미'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친근감을 보여 주고 있다. **O X**

고 3 2015학년도 6월B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기출문제로 쏙쏙

Q03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X

MEMO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시가 이 **코1** 2018학년도 6월

(가)

어리석고 세상물정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두고
 곳은 날씨에 썩은 짚이 떨감이 되어
 세 흙 밥 닷 흙 죽에 연기(煙氣)도 많기도 많구나
 설 태운 송늬에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생애 이리하다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나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중략)

소 한 번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씀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헬이를 오래토록 하온 후에
 어와 그 뉘신고 염치 없는 내옴노라
 초경도 거운데 그 어찌 와 계신고
 해마다 이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노라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줌 직도 하지마는
 다만 어제 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 내고
 갓 익은 삼해주(三亥酒)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말하기가 어려
 왜라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현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 오니
 풍채 적은 모습에 개 짖을 뿐이로다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구나

[A]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는구나
 세상 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님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련마는
 빈 집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봄농사도 거의로다 팽개쳐 던져 두자
 강호(江湖)에서 큰 꿈을 생각한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있었구나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낚시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누항: 누추한 곳.
- *안빈일념: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갖겠다는 생각.
-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우니.
- *쟁기: 말이나 소에 끌려 논밭을 가는 농기구.
- *벗보님도 좋을시고: 쟁기 날이 잘 관리된 상태라는 의미로 추정됨.

(나)

다음은 어느 중로(中老)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여인이 젊었을 때였다. 남편이 거둬 사업에 실패하자, 이들 내외는 갑자기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갔다 넘기면 다소의 이윤이 생겼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제 날로 돌아오는 어렵지만, 이틀째에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 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에만 닿으면 만나려니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 만하게 알았나 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

이 여관을 뒤졌지요. 여관이란 여관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이는 없었어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뜯는 으로 새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이의 친한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흑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 봤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했다.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 안 될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 시장 옆에 자리를 구해 사과 소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보도 옳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8·15 직후였으니…….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만 해도 세 시간 남아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B]

그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世波)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엘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말은 결코 진부한 일 편의 경구(警句)만은 아니다.

-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

1.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규칙적인 음보 사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B]는 경구를 활용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대화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누항사」는 전란을 겪은 사대부가 누항에서 스스로 노동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상적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나타낸다.

	①	②	③
상황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함.	농사를 짓기 위한 소를 빌리지 못함.	명월청풍과 더불어 한가롭게 삶.
심리	안빈일념을 추구함.	▶ 암담함을 느낌.	▶ 시름을 잊고자 함.

- ① ㉠에는 ㉡의 심리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에는 ㉡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급한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에는 ㉡의 심리가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에는 ㉡의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에 투영되어 있다.
- ⑤ ㉢에는 ㉡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작품 읽기의 기본

(가)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화자와 대상의 관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지만 _____ 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
상황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_____ 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자 함 → 이웃집에 _____ 를 빌리러 갔지만 빌리지 못하고 돌아옴 → 누추한 집으로 돌아와 슬퍼하다 결국 _____ 를 포기함 → _____ 을 벗 삼아 늙기를 원함

(나)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주제
가난 속에서 피어난 _____

문제 편

산문

홀로 공부하는 수능 국어 BASIC

출수 국어 BASIC 산문 CHAPTER

작품으로 탄탄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한다.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일 거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6·25(출)이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안은 그였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는 털털거리는 시외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짜개고 작은 파편조각,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 두게 한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작품으로 탄탄'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산문' 영역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어를 정리해 두었어. '알맹이만 알려 줄게!'에는 개념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로 쉽고 친절한 보충 설명을 덧붙여 놓았지!

벗고 옛날 얘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툠툴히 엮은 삼태기를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손목이 삼촌이 까무룩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푸른 이끼 자라는 우물의 돌 틈에서 손톱만 한 개구리들이 팡팡팡팡 뛰어들고 빈 우물이 우우웅 웅웅깊은 소리로 울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울리어어라는 손목이 삼촌의 소리가 땅 밑으로부터 벽에 부딪혀 몇 바퀴 돌아 나오면 우물가의 남자들이 줄을 당겼다.

- 오정화, 「옛 우물」 -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을과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겁

기출문제로 쏙쏙

002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O X

기출문제로 쏙쏙

003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

자체 제작 문제인 '확인문제로 쏙쏙'과 고1, 고2 학평 및 고3 수능, 모평으로 구성된 '기출문제로 쏙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해 보자. '기출문제로 쏙쏙'은 고1 → 고2 → 고3 문제 순으로 제시해 두었는데, 각 개념어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모든 문제를 거뜰히 풀 수 있을 거야!

출수 국어 BASIC 산문 CHALLENGE

현대산문 02 고1 | 2016학년도 9월

광순이는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도 별로 없었다. 책을 몇 번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녔는데, 아침에 책상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저녁때 그대로 들고 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기형에게만은 어느 때, 그것도 우연히 보여 주는 수가 있었다. 영이 또는 불어로 된 시집이거나 어려운 한문이 많은 문학 평론집 등속이어서 기형이를 더욱 야고죽게 만들었다.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세계였다. 그는 가끔 기형이를 학교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좀처럼 산악기르 천는 일이 드물었다. 기야 천하의 아

고 끈끈한, 기운이 감돌았다. 기형이가 제일 좋아하는 광순네 아버지가 썼다는 서재였다. 그의 아버 경제학을 했던지, 대부분 일본 말로 된 그쪽 서적 네 벽을 거의 차지하고 남았다. 그중의 상당 부 문학 서적들이었다. 광순이는 특별히 서재에 인 주겠다는 표정을 감추고, 극히 천연스럽게 그 방 기형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대수로운 것이 못 된 듯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앉기를 권했다. 일단 트이자 광순이는 기형이를 자주 집에 초대했고, 때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기도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동창회에서 자기소개를 꺼리던 광

CHALLENGE에서도 고1부터 고3까지의 기출 지문을 실어 두었고,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 하나, 작품의 내용에 대한 문제 하나 총 두 개의 대표 문제를 제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이때 지문을 읽고 '작품 읽기의 기본'의 빈칸을 먼저 채운 다음 문제를 푸는 순서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해! 왜냐하면 우리가 '산문'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문제를 맞혔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작품을 읽고 인물들의 심리 및 갈등, 인물 간의 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지!

(1) 인물의 성격과 심리

1. 성격: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2. 심리: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작품으로 탄탄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잊으려 한다.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일 거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공산주의자가 되어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서출(庶出)이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다.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안은 그는 묵묵히 병원 문을 나섰다. 나는 잠자코 뒤를 따랐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데에도 무진 힘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는 털털거리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다. 수술만큼이나 길고 조마조마한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짜개고 작은 파편조각을 뽑아 낸 대신 의사들로 하여금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 두게 한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였다. 무려 다섯 시간에 걸친 집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삼촌은 간신히 골방으로 돌아와 드러눕고 나서야 내 어머니께 씩어 뱉듯 말했다.

“백죄 몸뚱이만 생으로 난도질해 놔다 아입니까. 두번 다시 할 짓 못 됩디더. 고무다리에 외팔 인생도 싸비린 판국에 그까짓 쇠쪼가리 하나 들었으마 어떻게 안 들었으마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죽으마 썩어질 몸뚱이…… 내사 마, 이대로 좋심더. 의사들은 다시 해보자 캡니다만 나는 싫다 아입니까. 거죽만 멀쩡하지 난들 성한 사람입니까? 불구 인생이기는 피장파장인기라요…….”

삼촌은 두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궂은 날이면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일쭉 끄꿍 앓으면서도 병원은 찾지 않았다.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술자리가 아문 뒤에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내게 자주 들려주던 그 전쟁 이야기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뒤덮은 그늘도 갈수록 더 짙어지기만 하는 그를 두고 내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삼촌의 가슴팍에 박혀 있는 쇠독(毒) 때문이라며 얼마나 자주 한숨짓곤 했던가…….

— 이동하, 「파편」 —

알맹이만 알려 줄게!

삼촌은 본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인물인데, 가슴에 부상을 입어 제대하고 수술에 실패한 이후로는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게 돼. 즉 삼촌은 성격의 변화가 나타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듯 어떤 인물을 다른 인물과는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인물의 고유한 성질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를 ‘인물의 성격 변화’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인물의 단순 ‘심리 변화’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겠지?

PRACTICE 개념 훈련하기

다음 글을 읽고 그 내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에 표시하십시오.

고 1 2018학년도 3월

그로부터 두 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야 아버지는 돌아왔다. 그 행려 끝에 무슨 결심을 굳혔는지 돌배산 자락을 덮은 민 씨네 대나무 밭의 굵은 대 몇 그루를 찌와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 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햇빛에 말려선, 장두칼로 다듬고, 한지에 바람 구멍을 뚫어, 거기에 다섯 개 댕개비를 붙여 방패연을 만드는 솜씨는 아버지가 지닌 유일한 기술 같아 보였다. 천장 가운데 태극무늬나 붉은 원을 그려 붙여 만든 연이 큰 놈은 두 번 접은 신문지만 했고 작은 놈은 교과서만 한 크기도 있었다.

“㉠겨울도 아인데 그 많은 연을 어데다 팔라 캡니까?” 내가 물었다.

“머 꼭 돈이 목적이라서 맹그나. 쓸모없어도 맹글고 싶으이께 맹들제. 참새가 날라 카모 기러기만큼 와 하늘 높이 몬 날겠노. 먼 데꺼정 갈 필요가 없으이께 지 오를 만큼 오르고 말지려.”

아버지가 쓸데없이 비유까지 곁들여 말했다.

“옛적에 연 맹글어 찼다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맹글어예?”

“사람은 어데 갈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연맹크로 그냥 멀리로 떠나 댕기고 싶은 꿈이 있는 기라. 그런 꿈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은 꼭 개미 같아. 사람은 개미가 아이잖나.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을 보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려. 그 사람들이 보모 내 같은 사람이 쓸모없이 보일란지 몰라도…….”

아버지가 어설픈 미소를 띠어 보였다.

“묵고살기 바쁘모 그래 산천 구경하고 싶어도 몬 떠나는 거 아입니까.”

하며,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렇기사 하겠제. 그라고 보모 나는 아매 떠돌아당기는 팔자를 타고났나 보제.”

아버지가 시무룩이 말했다.

— 김원일, 「연(鳶)」 —

기출문제로 쏙쏙

Q01 ㉠에는 뜬금없이 많은 연을 만드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 하는 ‘나’의 심리가 담겨 있다. **O** **X**

고 2 2015학년도 3월

그해 여름 장마가 지나고 우물을 쳤다. 물맛이 뒤집혔기 때문이었다.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번고가 있을라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어른들은 믿었다. 그해의 장마는 대단했다. 아이들은 모두 강으로 달려갔다. 어른들은 긴 장대와 망태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학교는 휴교였다.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강 건너 섬에는 포플러 가지들만이 비죽비죽 솟아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누런 물이 범람하는 강은 벌판 같았다. 어른들은 강이 범람하여 독을 무너뜨릴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장대를 들고 강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마통에 똥 덩어리가 제 이름 부르며 흘러가더라. 동동동동 똥똥똥똥. 마지막 후렴은 목소리를 모아 악을 쓰듯 질러대었다. 비바람에 새파래진 얼굴과 입술로. 강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호박과 장롱과 양은술, 우리에 든 채인 닭과 토끼가 사나운 물살에 실려 떠내려왔다. 인자 아버지는 짹짹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오는 돼지를 잡으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

동네 어른들은 우물 속에 차오르던 황토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날을 잡아 떡과 돼지머리, 과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낸 뒤 남자들이 물을 퍼냈다. 그러고는 제대 군인 순옥이 삼촌이 양말과 신발을 벗고 옛날 얘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튼튼히 엮은 삼태기를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순옥이 삼촌이 까무룩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한없이 깊고 어두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푸른 이끼 자라는 우물의 돌 틈에서 손톱만 한 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어오르고 빈 우물이 우우웅 웅웅깊은 소리로 울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올리어어라는 순옥이 삼촌의 소리가 땅 밑으로부터 벽에 부딪혀 몇 바퀴 돌아 나오면 우물가의 남자들이 줄을 당겼다.

- 오정희, 「옛 우물」 -

기출문제로 쏙쏙

Q02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고 3 2013학년도 6월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물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기출문제로 쏙쏙

Q03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산문 이 **고 1** 2018학년도 11월

용쇠는 역시 아무 대꾸가 없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구? 자네는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네마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가 어디 있나? 사람에게 수족을 붙여준 것은 일하라는 것이지 남을 함부로 때리라는 것은 아니야.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이기는 일반이라 하면 제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그리 등분이 없을 게다. 덮어놓고 제 뜻만 맞추라고 남을 강제하는 것은 포박한 것이 아닌가? 얼격박이*를 밟다고 암만 두드려 준대야 그게 별안간 뻘뻘질해질 이치는 없지! 자네는 오늘부터 짐승을 배우게!”

“무얼? 짐승을?”

하고 용쇠는 얼굴이 빨개지며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 본다.

“그래! 짐승을 배우란 말이야! 자네 집에 제비가 제비 새끼를 치지 않는가? 그 어미 제비를 배우란 말이야! 공자님의 말이나 누구의 말보다도.”

용쇠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만 자기를 모욕하는 줄만 알았다. 그래 속으로는 분하였지마는 그대로 참고 들었다.

용쇠가 이렇게 혼이 난 뒤에 동리 사람들은 더욱 정도령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기는 그전부터 하였다. 그것은 그의 건장한 체격과 또한 그의 의리 있는 심지가 누구든지 자연히 그를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였다.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속으로는 그의 행동을 감복하였다. 그래 그의 이름이 근사한 것을 기화로 그를 모두 계룡산 정도령(鄭道令)이라 하였다.

그에 대한 이러한 존경은 건넯말 양반촌에서도—유명한 김 주사까지도—그를 만만히 보지 못하였다. 그래 고양이 있는 집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생쥐같이 지내던 이 동리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힘을 입었다. 그래 이 동리 사람들은 어른 아이 없이 그를 참으로 정도령같이 믿으며 그의 말이라면 모두 복종하게 되었다. 물론 이 동리의 크거나 적은 일은

그의 계획과 지휘로 해결되었다. 그런데 그를 그중 사랑하기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었다. 그것은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횡포를 규탄해 주는 까닭으로 그러하였다. 마치 일전에 용쇠를 혼내 주듯 하므로.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이 동리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가련하였다. 용쇠는 그래도 딸이나 팔아먹었지만 늙은 부모하고 어린 자식들에 식구는 우굴우굴한데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는 집이 정성드못하였다*. 더구나 지금은 농가에서는 제일 어려운 보릿고개를 당한 판이니까. 모는 심어야겠는데 보리는 아직 털 익어서 채 익지도 않은 풋보리를 베어다가 뽕안 물을 짜내서 죽물을 끓여 먹는 집도 많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마을의 지주 김 주사는 춘이네가 소작하던 논을 하루아침에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긴다. 소작하던 논을 떼이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춘이 조모는 김 주사를 찾아간다.

김 주사는 감투를 쓰고—그는 지금도 평의원이다마는 감투 쓸 일은 이 밖에도 많다. 전 금융조합장, 전 보통학교 학무위원, 전 군참사, 적십자사 정사원, 지주회 부회장—(이답에 죽을 때에는 명정을 쓰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직함이 많았다)—점잖은 목소리로 논 떼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여태까지 몇 해를 잘 지어 먹었으니 인제는 그만 지어 먹게. 다른 사람도 좀 지어 먹어야지.”

그때 노파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구 나으리! 지금 와서 논을 떼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 집 식구는 모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개개빌어보았으나 김 주사는 그런 것은 나는 모르고, 내 땅은 내 맘대로 언제든지 뺄 수 있지 않느냐—뽕다 불호령을 하였다.

그래도 춘이 조모는 한나절을 애걸복걸하며 올 일년만 더 지어 먹게 해달래 보았으나 그는 도무지 막무가내이었다. 벌써 다시 변통이 없을 줄 안 춘이 조모

는 그 길로 나오다가 그 집 대뜰 위에서 그 아래로 물 구나무를 서서 고만 그 자리에 즉사하였다. 그는 지금 여든다섯 살인데 여기까지도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기어 왔었다.

[B] 그러나 김 주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인을 명하여 송장을 문밖으로 끌어내게 하였다. 그리고 송장 찾아가라고 춘이 집으로 전갈을 시키고 일변 구장을 불러서 경찰서로 보고하게 하였다. 김 주사는 마침 그 일인과 술을 먹을 때이므로 그는 물론 튼튼한 증인이 되었다.

행여 무슨 도리나 있는가 하고 기다리던 춘이 모자는 천만뜻밖에 이 기별을 듣고 천지가 아득하여 전지도지* 쫓아갔다. 그들은 지금 시체 옆에 엎드려서 오직 쉼게 통곡할 뿐이었다.

그런데 정도룡은 오늘 자기 집 모를 심다가 이 기별을 듣고는 한달음에 뛰어들어 왔다. 벌써 마을 사람들은 많이 모여 서서 김 주사의 포악한 행위를 욕하고 있다. 그중에 핏기 있는 원독이는 이 당장에 쫓아가서 그놈을 박살내자고 팔을 걷고 나서는데 겁쟁이들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걸으로 돈다. 더구나 김 주사 집 땅을 부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벌써부터 쫄무니를 사리려 든다.

“허—참 그거 원…… 나는 논을 갈다 왔는데 좀 가 보아야겠군!”

하고 용쇠가 머리를 주죽주죽하며 돌아서는 바람에 나도 나도 하고 몇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려 하는데 별안간 정도룡은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동리에 큰일이 났는데 제 집 일만 보러 드는 녀놈들도 김 주사 같은 놈이다.”

이 바람에 개 한 마리가 자지러지게 놀라서 깨갱거리며 달아난다. 그래 그들은 머주하니 돌쳐섰다. 이때의 정도룡은 눈에서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아이들을 늘어 놓아서 들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그들은 그의 전갈을 듣고 모두 뛰어들어 왔다. 더구나 용쇠 같은 이 낯단 말을 듣고,

정도룡은 그들을 일일이 지휘하여 일 치를 순서를 분배한 후 나머지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위선 김 주사 사는 동리로 급히 갔다.

— 이기영, 「농부 정도룡」—

*얼격박이: 얼굴에 흠이 많은 이를 이르는 말.

*경성드뭇하다: 많은 수효가 등성등성 흩어져 있다.

*전지도지: 엎드러지고 곱드러지며 몹시 급히 달아나는 모양.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외양 묘사를, [B]에서는 배경 묘사를 통해 현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열거를, [B]에서는 행위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인물의 대립을, [B]에서는 상황 제시를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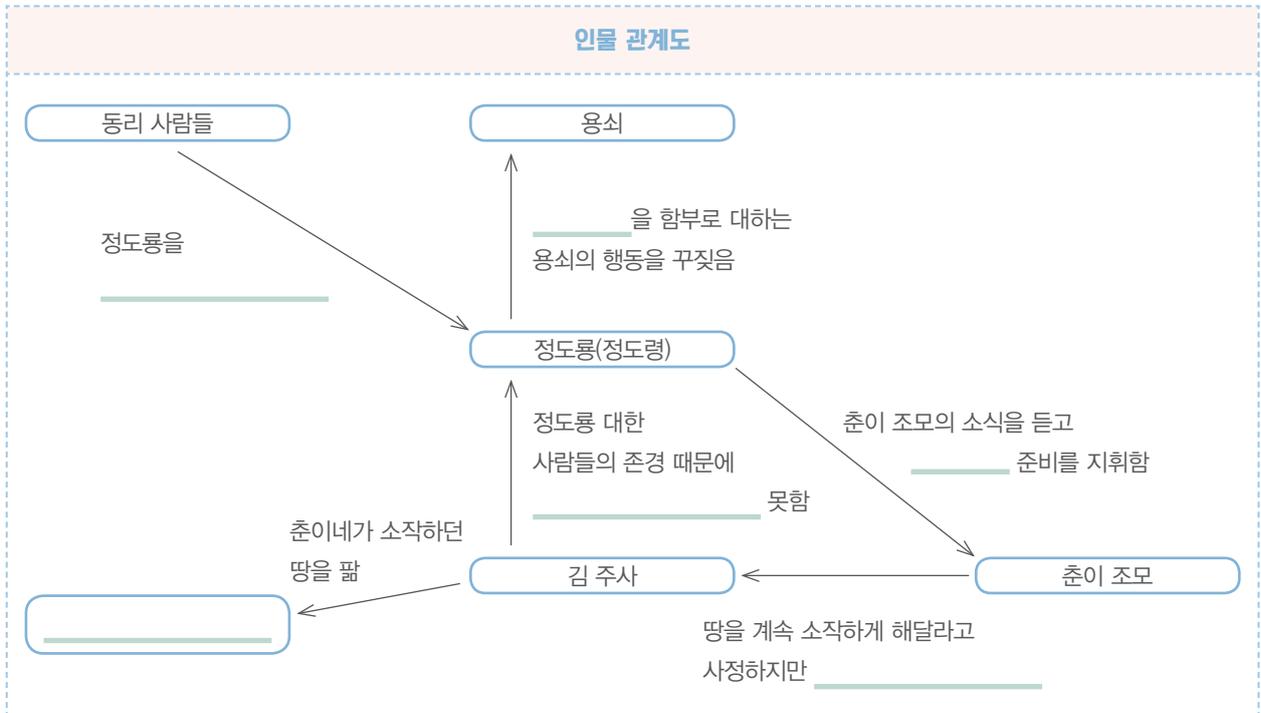
<보기>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지주의 부당한 행위와 이로 인해 핍박받던 궁핍한 소작농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이,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며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① ‘용쇠를 흔내 주듯’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횡포를 규탄’하는 정도룡의 모습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태도를 알 수 있군.
- ② ‘동리 사람들’이 ‘뭇보리’로 ‘죽물을 끓여 먹는’ 모습에서 일제 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삶을 알 수 있군.
- ③ ‘내 땅은 내 말대로 언제든지 썰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김 주사의 모습에서 소작농을 핍박하는 지주의 태도를 알 수 있군.
- ④ ‘김 주사 집 땅을 부치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며 ‘공무니를 사리’는 모습에서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알 수 있군.
- ⑤ ‘춘이 조모’의 장례를 ‘일일이 지휘하’는 정도룡의 모습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의 실천적 노력을 알 수 있군.

작품 읽기의 기본

이기영, 「농부 정도롱」



문제 편

독서

홀로 공부하는 수능 국어 BASIC

출수 국어 BASIC 독서 STEP

알맹이만 알려 줄게!

문장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문장을 '생각이나 감정을 밀하고 있어, 쉽게 생각하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단이 모여 글(지문)이 되는 만큼, 문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우선 문장을 꼼꼼히 읽는 훈련을 할 거야!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문장 성분)은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를 다음의

우와,	영태가	유명한	요리사가
독립어	주어 1	관형어	보어

STEP 01에서는 ‘알맹이만 알려 줄게!’를 통해 글의 기본 단위인 ‘문장’에 대한 접근법과 길고 어려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설명해 줄 거야! 알아두면 좋을 어휘들은 * 표시를 하고 뜻은 해설 책의 ‘알고 채점하자!’에 정리해 두었어.

확인문제로 쓱쓱

Q21

	준칙주의	재량
통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제	_____ 이 손상되지 않는 것	
정책 신뢰성을 얻는 방법	어떠한 상황에서도 _____ 을 지키는 것	

기출문제로 쓱쓱

22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

23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X

STEP 02에서는 글의 전개 방법에 주목하여 ‘문단’을 읽는 법을 훈련할 거야. ‘알맹이만 알려 줄게!’에 제시된 독해 전략을 꼼꼼히 읽고 이를 고려해 지문을 읽어 보자! ‘확인문제로 쓱쓱’과 ‘기출문제로 쓱쓱’을 풀면 독해의 기본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거야!

출수 국어 BASIC 독서 CHALLENGE

지문 읽기의 기본

문장 읽기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문단 읽기

별의 이론상 속력		=	별의 실제 속력	
중심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_____		중심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CHALLENGE에서도 STEP 01, STEP 02와 마찬가지로 고1부터 고3까지의 기출 지문을 실어두었고,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 하나, 추론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 하나 총 두 개의 대표 문제를 제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운문, 산문 영역과 달리 독서 영역에서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후 ‘지문 읽기의 기본’을 활용해 다시 한번 문장, 문단을 꼼꼼하게 읽고 구조도를 완성하는 순서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해! 이를 통해 스스로의 독해 습관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지문에서 ‘문장 읽기’와 관한 부분은 형광펜, ‘문단 읽기’와 관한 부분은 주황색 박스로 표시해 두었어. 그리고 ‘구조도 그리기’는 전체 지문을 대상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면 돼!

STEP 02 문단 읽기



알맹이만 알려 줄게!

문장을 차근차근 읽어 봤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단을 읽어 보자! 문단을 읽을 때에는 문단 내, 혹은 문단 간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해.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구성 방식을 이해하면 파악할 수 있지!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핵심 정보는 구성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이런 방식으로 썼네. 그럼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겠네. 따라서 답은 2번이겠네.’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예를 들어 어떤 두 개념의 비교와 대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이라면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제에서 물을 수밖에 없겠지? 또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글에서는 어떤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야기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테니 인과 관계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할 테고!

STEP 02 문단 읽기에서는 핵심 정보를 찾는 데 효과적인 구성 방식, 다시 말해 글을 전개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개 방법인 ‘정의와 예시’,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원리와 과정’을 살펴볼 거야.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개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

정의와 예시	정의: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나 법칙, 개념의 속성 등을 드러내는 방법
비교와 대조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
원인과 결과(인과)	‘왜’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전개하는 방법
원리와 과정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전개하는 방법



알맹이만 알려 줄게!

STEP 02 문단 읽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 전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읽는 훈련을 해볼 거야! ‘정의와 예시’,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원리와 과정’ 각각의 전개 방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독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TIP을 줄 테니 놓치지 말고 따라와!

PRACTICE 문단 읽기 훈련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정의와 예시

📢 알맹이만 알려 줄게!

정의는 대충 읽어선 안 돼. 개념을 놓치면 이후 독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 그러니 일단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표시를 해 두자! 특히 정의가 꽤 긴 경우에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 이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념에 대한 정의를 끊어 가며 읽으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고 1 2017학년도 9월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공급자에게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한다. 명목금리는 금융 자산의 액면 금액에 대한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돈의 실제 가치인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금리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6%인데 1년 사이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1%로 예금 가입자는 돈의 가치인 구매력에서 손해를 본 셈이다.

🔍 확인문제로 쓱쓱

Q01

금리 = _____	
① 명목금리	금융 자산의 _____ 에 대한 금리
② _____	_____ 을 감안한 금리. 물가상승률과 (비례 / 반비례) 관계임

🔍 기출문제로 쓱쓱

Q02 금리 = (이자 금액 ÷ 원금) × 100 O X

Q03 실질금리 = 금융 자산의 액면 금액 - 물가상승률 O X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지문 읽기

알맹이만 알려 줄게!

최근 기출에서 오답률 상위권에 드는 문제 대부분이 독서야. 그런데 지문에서 특정 문제만 오답률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지문에 딸린 모든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는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해를 포기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 주지.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최근의 독서 지문은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어.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담고 있는 내용도 많아진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보니 글을 읽으며 길을 잃거나, 다 읽었음에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은 늘어났지. 그렇다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림 1>



<그림 2>

알맹이만 알려 줄게!

<그림 1>처럼 각각의 정보를 모두 개별적으로 인식하면서 읽는다면 지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보는 총 12개야. 하지만 <그림 2>처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한 다음 중간에서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고, 마지막에 그중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와 같은 식으로 정보를 ‘덩어리’ 지으면서 읽는다면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은 4개로 줄어들지. 이것이 곧 글의 ‘구조’야.

정보들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지문을 읽는 과정이나 이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에 파묻혀 흐름을 놓치기 쉬워. 하지만 <그림 2>처럼 구조를 파악하며 읽으면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문의 핵심이 보이고 문제를 풀 때에도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의 어느 부분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훈련한 ‘문장 읽기’, ‘문단 읽기’와 더불어 ‘구조도 그리기’ 훈련을 해 볼 거야. 구조도 그리기는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빈 종이에 바로 구조도를 그리는 것은 어려우니 우선 빈칸을 채우며 구조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어. 하지만 이 책을 다 공부한 다음에는 기출을 분석하면서 빈 종이에 처음부터 직접 구조도를 그려보자. 구조도 그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분명 실전에서는 구조도를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테니까!

그럼 시작해볼까? 앞서 안내했던 것처럼 지문을 읽고 문제까지 풀 다음, ‘지문 읽기의 기본’에서 다시 한번 문장, 문단, 지문을 차분히 읽으며 자신의 독해 습관을 점검해보자!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읽기 이 **고1** 2016학년도 9월

기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테크네’에서 유래하였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사물의 본질을 밝혀 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에피스테메,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생산해 내는 실용적인 활동을 테크네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의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 등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16세기 영국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의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善)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등장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로 파악하였지만, 그 기술은 인간이 세계의 사물들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때 도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갖는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령 맨눈으로 황금빛 보름달을 관찰하는 경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측하는 경우,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첫 번째 달은 시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두 번째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세 번째 달은 특정한 광물질의 보고(寶庫)*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기술을 통한 자연 정복을 선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기술을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 윗글의 하이데거(A)와 <보기>의 돈 아이디(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돈 아이디’는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 일부로 체현*되어 ‘유사-자아’가 된다고 보았다. 이때 기술은 비종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관한 특정한 시각 경험은 확장되겠지만, 동시에 맨눈으로 달을 바라보았을 때의 경험은 축소된다. 기술로 인해 ‘나’와 세계의 관계는 일부 바뀌고, ‘나’의 존재론적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 ① (A), (B) 모두 기술을 비종립적인 존재로 보고 있군.
- ② (A), (B) 모두 기술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③ (A)와 달리 (B)는 기술을 확장된 신체의 일부로 보고 있군.
- ④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보고 있군.
- ⑤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로 본 반면, (B)는 기술과 인간을 공생적 관계로 보고 있군.

📖 지문 읽기의 기본

문장 읽기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종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문단 읽기

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 기술을 _____ 으로 간주		② 근대 초기 철학자들 : ①의 사상 _____		③ 20C :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등장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베이컨	_____	㉣ _____
정신적인 활동을 _____, 실용적인 활동을 _____로 구분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도 _____로 봄	기술이 정치적 정복이나 철학적 논쟁보다 _____고 주장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선으로 규정	기술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구성하는 _____임

구조도 그리기

〈기술을 보는 관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_____ 철학자들	20C 하이데거
_____ 가치를 더 중시하는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베이컨: 기술의 이로움 주장 - 피히테: 기술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_____으로 봄	- 기술이 비종립적 존재임을 강조 - 도구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세계에 대한 _____가 달라짐



CHAPTER 04 의미 관계와 중의성

(1) 의미 관계

1.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들이 의미를 중심으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

① 유의 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

예 '가끔'과 '종종', '걱정'과 '근심', '틈'과 '겨울'

② 반의 관계: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관계. 여러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될 때 성립함

예 '소년'과 '소녀', '위'와 '아래', (시계가) '서다'와 '가다', (체면이) '서다'와 '깎이다'

③ 상하 관계: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상의어)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하의어) 의미 관계

예 '조류'와 '비둘기, 참새, 제비', '악기'와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스포츠'와 '축구, 농구, 배구'

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① 동음이의어: 우연히 소리가 같을 뿐 어원은 전혀 다른 단어로, 사전에 각각의 단어로 등재됨

예 글씨를 쓰다, 모자를 쓰다, 약이 쓰다, 돈을 쓰다

② 다의어: 하나의 소리에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됨

예 모자를 쓰다, 우산을 쓰다, 누명을 쓰다

(2) 중의적 표현

1. 중의문의 유형

① 어휘의 중의성으로 인한 것

- 동음이의어에 의한 중의성

예 배가 정말 크다: 과일인 배가 정말 크다. vs. 사람이나 짐을 싣는 수단인 배가 정말 크다.

- 다의어와 관용 표현에 의한 중의성

예 이 길을 나와 함께 걷자: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 vs. 인생의 여정

우리 어머니는 손이 크다: 신체 일부인 손(手)이 크다. vs. 씩씩이가 크다.

② 문장 구조 차이로 인한 것

원인	예	해석
• 주어의 범위로 인한 경우	광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광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vs. 광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 수식하는 말이 불분명한 경우	귀여운 승호의 동생이 놀러 왔다.	'승호'가 귀엽다. vs. '승호의 동생'이 귀엽다.
• 비교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가영이는 나보다 치킨을 더 좋아한다.	'가영'과 '나'가 각각 치킨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 vs. '가영'이 좋아하는 대상인 '나'와 '치킨'을 비교
• 접속 조사로 인한 경우	영수는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	[영수는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 vs. 영수는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
• 부정 표현의 범위로 인한 경우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학생들 전체가 오지 않았다. vs. 학생들 일부가 오지 않았다.
• 상황 맥락으로 인한 경우	철호가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를 쓰는 동작이 진행 중인 상황(진행) vs. 모자를 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완료 지속)

2. 중의성 해소 방법: 의미를 한정하는 문맥이나 상황 제시, 심표의 사용, 어순 조절, 조사의 사용 등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① 광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 광수는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광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 ② 귀여운 승호의 동생이 놀러 왔다. → 귀여운, 승호의 동생이 놀러 왔다.(‘승호의 동생’이 귀엽다.)
- ③ 가영이는 나보다 치킨을 더 좋아한다. → 가영이는 내가 치킨을 좋아하는 것보다 치킨을 더 좋아한다.
(‘가영’과 ‘나’가 각각 치킨을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
- ④ 영수는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 → 영수와 찬기는 창수를 불렀다.([영수는 찬기와] 창수를 불렀다.)
- ⑤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학생들 일부가 오지 않았다.)
- ⑥ 철호가 모자를 쓰고 있다. → 철호가 모자를 쓰는 중이다.(모자를 쓰는 동작이 진행 중인 상황)

(3) 정확하지 못한 문장

1. 주어 또는 서술어의 생략

예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비’에 대한 서술어가 없음)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2.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생략

예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지배하다’와 호응하는 목적어가 생략됨)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3.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어색한 경우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주어 ‘말은’과 서술어 ‘바란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음)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 확인문제로 똑똑

Q01 다음의 중의적인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보고 중의성과 관련하여 수정한 이유를 쓰시오.

중의적인 문장	수정한 문장	수정한 이유
길이 없다.	① 도로가 없다. ② 방법이 없다.	다의어로 인한 중의성이 나타나서
그는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①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② 그는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① 손님이 전부 다 오지 않았다. ② 손님이 다는 오지 않았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을 보렴.	①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을 보렴. ②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을 보렴.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defined by a dashed blue border, intended for students to take notes or write answers during a lesson.

CHALLENGE 수능까지 달린다 문법 04

고 1 2018학년도 6월

1. 다음 문장들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녀는 학교에서 되었다. ↳ 그녀는 학교에서 회장이 되었다.
㉡	그는 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 ↳ 그는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낚시를 좋아한다.
㉢	우리 집의 특징은 앞마당이 넓다. ↳ 우리 집의 특징은 앞마당이 넓다는 것이다.
㉣	우리는 환경을 개선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우리는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들은 조용히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다. ↳ 그들은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다.

- ① ㉠: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주어를 추가한다.
- ② ㉡: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한다.
- ③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 의미가 중복되는 어휘를 삭제한다.

고 1 2017학년도 3월

2.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기강이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무너지다'가 된다. '벗다'도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반의어가 여럿이다.

단어	예문	반의어
벗다	외투를 벗다.	입다
	(가)	쓰다
	배낭을 벗다.	(나)

- | | | | |
|---|---------|--|-----|
| | (가) | | (나) |
| ① | 누명을 벗다. | | 메다 |
| ② | 안경을 벗다. | | 끼다 |
| ③ | 장갑을 벗다. | | 차다 |
| ④ | 모자를 벗다. | | 걸다 |
| ⑤ | 허물을 벗다. | | 들다 |

고 1 2016학년도 6월

3.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경준이는 손이 크다.
- ㉡ 효정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
- ㉢ 상호는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 ㉣ 어머니께서 나에게 사과와 굴 두 개를 주셨다.
- ㉤ 지훈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를 맞이했다.

- ① ㉠은 '손이 크다'의 의미가 신체의 손이 큰지 씬셈이가 큰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 ② ㉡은 '신고 있다'의 의미가 구두를 신는 중인지 구두를 신은 상태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 ③ ㉢은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어머니'인지 '그녀'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 ④ ㉣은 '사과'와 '굴'의 결합에 따라 '사과'와 '굴'이 각각 몇 개 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 ⑤ ㉤은 '웃으면서'의 주체가 '지훈이'인지 '지훈이와 소민이' 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군.

MEMO

고 2 2018학년도 6월

4. <보기>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바치다 동
 ① 반드시 내거나 물어야 할 돈을 가져다준다.
 ¶ ㉠

받치다¹ 동
 ①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 ㉡

받치다² 동
 ①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
 ¶ ㉢

②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 ㉣

받치다 동
 ①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 ㉤

- ① ㉠: 매년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바치고 있다.
- ② ㉡: 그는 설움에 받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 ③ ㉢: 그녀는 쟁반에 음료수 잔을 받치고 걸어갔다.
- ④ ㉣: 그가 우산을 받쳐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 ⑤ ㉤: 어머니께서 멸치젓을 체에 받쳐 놓았다.

고 2 2017학년도 11월

5.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물리다¹
동사
 【…에/에게】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나다. ¶ 세 끼 꼬박 국수를 먹어서 이젠 국수에 물렸다.

물리다²
동사
 [1]【…에/에게 …을】
 「1」'물다²[1]「2」의 피동사. ¶ 사나운 개에게 팔을 물리다.
 「2」'물다²[1]「3」의 피동사. ¶ 어젯밤 모기에게 코를 물렸다.

[2]【…에게】
 '물다²[1]「4」의 피동사. ¶ 그놈들에게 잘못 물렸다가는 큰일 치른다.

물리다³
동사
 [1]【…을】
 「1」'무르다²[1]「1」의 사동사. ¶ 친구는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물렸다.

[2]【…을 …으로】
 「1」 ㉠ ¶ 약속 날짜를 이틀 뒤로 물리다.

- ① 물리다¹, 물리다², 물리다³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 ② 물리다², 물리다³은 각각 다의어임을 알 수 있군.
- ③ 물리다¹의 용례로 '버스가 고장이 나 승객들이 차표를 도로 물리는 소동이 있었다.'를 추가할 수 있군.
- ④ 물리다²[1]은 물리다¹에 비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군.
- ⑤ 물리다³의 ㉠에는 '정해진 시기를 뒤로 늦추다.'가 들어갈 수 있겠군.

수능 국어 분석의 시작
문학·독서·문법 기본서

홀로 공부하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

홀수 국어

B A S I C

BASIC

CHAPTER 01

화자와 시적 대상, 시적 상황

문제 책 P.014

(1) 화자

Q01 O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에서 '나'라는 일인칭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알고 재접하자!

Q01 주제 의식의 전달: '~를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한다/강조한다/드러낸다'와 같은 선지의 경우 실제로 주제 의식을 전달, 강조하거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지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는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시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거든. 다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법은 시마다 다르기에 이와 같은 선지에서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를 통해'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자!

Q02 O

화자는 2연에서 '흰밥과 가재미와 나'를 '우리들'이라고 칭하며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라고 하였고, 6연에서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가 '흰밥'과 '가재미'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03 X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었다고 하려면 '나', '우리'와 같은 시어가 등장해야 한다. 하지만 윗글에서 '나'나 '우리'와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2) 시적 대상

Q04 O

화자는 시적 대상인 '치위와 주림에 시달리어 / 한겨우내- 움치고 떨며 / 살아 나온 사람들'이 꽃향기에 취해 그동안의 '서러운 얘기'를 '다아 / 까맣게 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때 '한겨우내'는 시적 대상이 견뎌 온 그동안의 고달픈 현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Q05 X

화자는 '까치밥'이라는 대상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인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윗글에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Q06 O

윗글에서 '새'는 순수하고 가식 없는 모습을 지닌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한 '새'를 총으로 쏘아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로 만드는 '포수'는 '새'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윗글은 '새'와 '포수'라는 대상을 대비하여 순수함을 파괴하는 폭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시적 상황

Q07 X

화자는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힘겨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다. 윗글에 대립적인 공간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Q08 O

'쏟아버린다', '짜릿한다', '슬퍼한다' 등에서 '-ㄴ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거미를 문 밖으로 끌어내리고 이를 서글퍼하는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Q09 O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에 있지 아니하고'를 반복하여 마음속 고향을 잃어버린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현대산문 이 (1~2)

1. ②

[A]에서는 '전 금융조합장, 전 보통학교 학무위원, 전 군참사, 적십자사 정사원, 지주회 부회장' 같은 열거를 통해 '감투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김 주사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춘이 조모의 죽음을 보고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인을 명하여 송장을 문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김 주사의 행위를 제시하여 그의 비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김 주사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B]에서도 김 주사의 구체적인 행위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배경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B]에서는 김 주사가 춘이 조모의 '송장을 문밖으로 끌어내게 하'고, '경찰서로 보고'하는 등의 상황을 제시하여 춘이 조모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A]에서는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김 주사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을 뿐, 인물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와 [B] 모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A]와 [B] 모두 인물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알고 채점하자!

⑤ 사건 흐름의 지연: 독백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인물의 독백이 제시되는 동안 사건의 전개 속도는 느려지니 사건의 흐름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중 상대적으로 사건의 흐름이 지연되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 아무래도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보여 주는 간접 제시가 직접 제시보다 사건의 흐름을 지연시키지. 또한 '요약적 제시'는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하는 방식이니 사건의 전개 속도는 빨라지게 돼!

2. ④

춘이 조모가 김 주사를 찾아가 '올 일 년만 더' 땅을 소작하게 해 달라고 빌다가 죽게 된 일과 관련해 마을 사람들은 '김 주사의 포박한 행위를 욕한다. 하지만 '당장에 쫓아가서 그놈을 박살내자고 팔을 걷고 나서는' 원두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들 '눈치만 보고' 특하나 '김 주사 집 땅을 부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벌써부터 꿈무니'를 사린다. 이는 춘이 조모의 죽음과 관련하여 김 주사를 비난하는 일에 가담했다가는 자신 역시 소작할 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이므로, 이들이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서도 윗글에는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김 주사 집 땅을 부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에서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보기>에서 윗글에 등장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은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윗글에서 정도룡은 자식을 때리며 함부로 대하는 용쇠를 호되게 꾸짖고 있으며, '용쇠를 혼내 주듯' 또 다른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횡포를 규탄'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도룡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로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윗글은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핍박받던 궁핍한 소작농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동리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겪으며 '채 익지도 않은 풋보리를 베어다가 뽕안 물을 짜내서 죽물을 끓여 먹는' 모습에서는 일제 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윗글은 '지주의 부당한 행위와 이로 인해 핍박받던 궁핍한 소작농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지금 와서 논을 떼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제 집 식구는 모다 굶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며 간절히 비는 춘이 조모에게 '내 땅은 내 말대로 언제든지 뜰 수 있지 않느냐'라며 불호령을 하는 김 주사의 모습에서 소작농을 핍박하는 지주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윗글에 등장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은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춘이 조모의 죽음과 관련하여 '꿈무니를 사리려' 드는 사람들에게 '동리에 큰일이 났는데 제 집 일만 보러 드는 놈들도 김 주사 같은 놈'이라고 호통을 치며 춘이 조모의 장례를 '일일이 지휘'하는 정도룡의 모습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의 실천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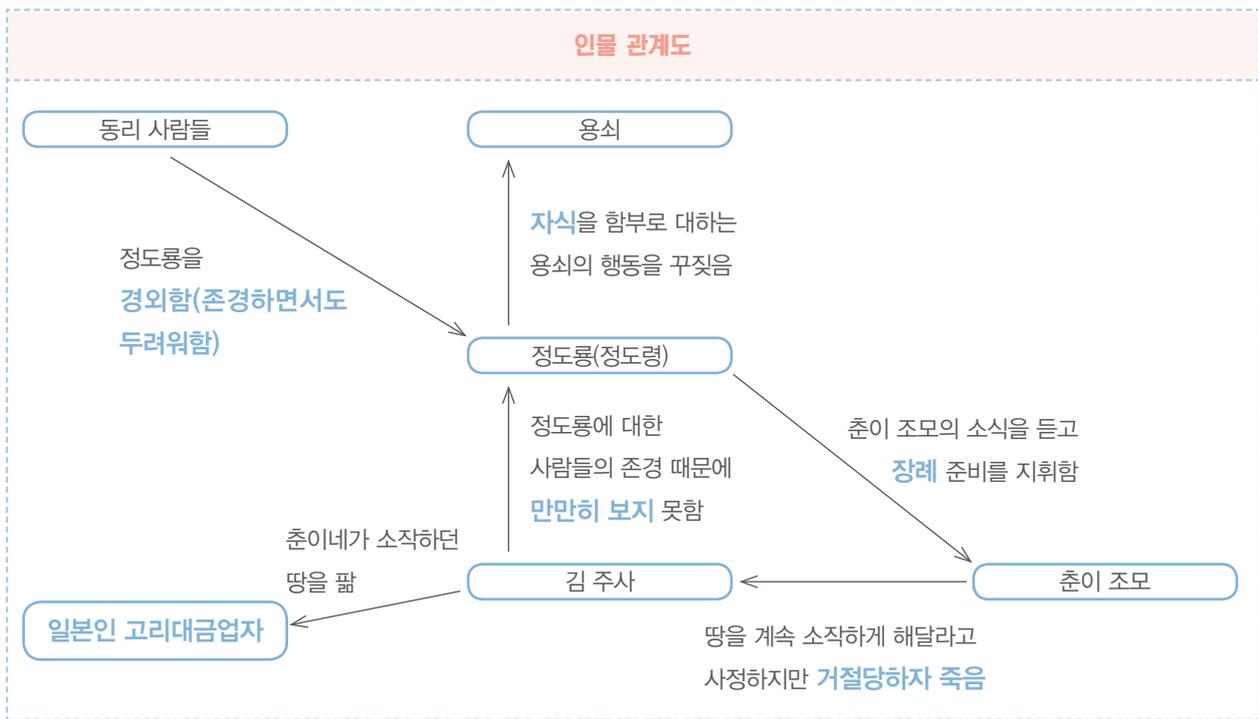
알고 채점하자!

- ◎ <보기>가 제시되면 당연히 <보기>의 설명과 연관지어 작품을 이해·감상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때 <보기>는 작품 자체의 형식이나 내용적 특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작가의 생애나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 등과 같은 외재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보기>가 있는 문제에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는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설명이 제대로 연관되어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① 규탄: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잡아내어 따지고 나무람.

📖 **작품 읽기의 기본**

이기영, 「농부 정도롱」



※ 빈칸에 정확히 똑같은 답을 쓰지 않았더라도, 맥락상 의미가 동일하다면 맞다고 채점하면 됩니다.

지문 읽기 06 (11~12)

11. ①

3문단에서 소장에 흡수된 포도당 한 분자는 조직 세포의 '세포질'에서 2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면서 '2개의 NADH₂'를 만들어낸다고 한 것과 4문단에서 2개의 피루브산이 TCA회로에서 '8개의 NADH₂'를 만들어낸다고 한 것을 통해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NADH₂는 8개가 아니라 총 10개를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2문단에서 외호흡은 '폐의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라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조직 세포에 들어온 산소가 영양소와 결합하여 영양소가 산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TCA회로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6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에너지는 사람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12. ④

4문단에서 피루브산 한 분자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㉔)에 있는 TCA회로에 투입'되면 '1개의 FADH₂, 1개의 ATP가 함께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므로 피루브산 한 분자 당 FADH₂와 ATP가 2개씩 생성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에서 '포도당'은 '소장(㉑)에서 흡수'된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산소는 '모세혈관(㉒)을 통해 조직 세포에 들어온'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영양소인 '포도당은 모세혈관(㉒)을 타고 조직 세포로 운반'된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포도당은 '세포의 세포질(㉓)에서 2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면서, 2개의 ATP'를 생성하는데, 4문단에서 ATP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㉔)에 있는 전자전달계'에서 'NADH₂와 FADH₂'를 이용해 'ATP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였다.

알고 채점하자!

지문 읽기 06

*생장: 나서 자람. 또는 그런 과정.

*보완: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문장 읽기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의해** 모세혈관을 통해 조직 세포에 들어온 산소가 영양소와 결합하여 영양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내호흡이라고 한다.

🗨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에 의해 조직 세포로 들어온 산소가 영양소를 산화시키며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이 내호흡이야. 지문 초반에 제시된 순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것 기억나지? 내호흡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략적인 과정도 제시했다는 점을 놓치면 안돼!

문단 읽기

〈영양소가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

소장	포도당 흡수					
↓ 모세혈관을 통해 포도당이 이동함						
조직 세포의 세포질	포도당 (1분자 단위)	<table border="1"> <tr><td>ATP×2</td></tr> <tr><td>NADH₂×2</td></tr> <tr><td>피루브산×2</td></tr> </table>	ATP×2	NADH ₂ ×2	피루브산×2	
ATP×2						
NADH ₂ ×2						
피루브산×2						
↓ 피루브산이 이동함						
TCA회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피루브산 (1분자 단위)	<table border="1"> <tr><td>이산화탄소×3</td></tr> <tr><td>NADH₂×4</td></tr> <tr><td>FADH₂×1</td></tr> <tr><td>ATP×1</td></tr> </table> <p>– 포도당 1분자로 피루브산 2분자가 생성되므로 이산화탄소×6, NADH₂×8, FADH₂×2, ATP×2</p>	이산화탄소×3	NADH ₂ ×4	FADH ₂ ×1	ATP×1
이산화탄소×3						
NADH ₂ ×4						
FADH ₂ ×1						
ATP×1						
↓ NADH ₂ 와 FADH ₂ 가 이동함						
전자전달계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table border="1"> <tr><td>NADH₂ (1분자 단위)</td></tr> <tr><td>FADH₂ (1분자 단위)</td></tr> </table>	NADH ₂ (1분자 단위)	FADH ₂ (1분자 단위)	<table border="1"> <tr><td>ATP×3</td></tr> <tr><td>ATP×2</td></tr> </table> <p>– 포도당 1분자 단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성된 NADH₂와 FADH₂의 총량을 고려할 때 1) 모든 NADH₂가 생성한 ATP의 총량: 10×3=30 2) 모든 FADH₂가 생성한 ATP의 총량: 2×2=4</p>	ATP×3	ATP×2
NADH ₂ (1분자 단위)						
FADH ₂ (1분자 단위)						
ATP×3						
ATP×2						

∴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ATP를 총 38개 얻을 수 있음

🗨 ‘영양소가 산화되어 에너지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세 가지의 주요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고 했으니, 과정을 3가지로 끊어가며 각 단계의 특징을 정리하며 읽어야 해!

8. ④

[A]에서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물’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또한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㉔의 ‘있다’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형용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하며 반의어인 ‘없다’도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㉔에서 동사인 ‘먹다’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하여 ‘먹는다’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과 달리, 형용사인 ‘예쁘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할 경우 ‘예쁘다’라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② [A]에서 형용사는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와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㉔에서 동사인 ‘먹다’가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와 청유형 종결 어미 ‘-자’와 결합하여 ‘먹어라, 먹자’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과 달리, 형용사인 ‘예쁘다’는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나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결합할 경우 ‘예빠라, 예쁘자’라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③ [A]에서 형용사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㉔에서 동사인 ‘먹다’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와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러’와 결합하여 ‘먹으려고, 먹으러’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과 달리, 형용사인 ‘예쁘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러’가 결합할 경우 ‘예쁘려고, 예쁘러’라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⑤ [A]에서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㉔의 ‘나무가 크다.’와 ‘머리카락이 길다.’에서의 ‘크다’와 ‘길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나무가 쑥쑥 크다.’와 ‘머리카락이 잘 긴다.’에서의 ‘크다’와 ‘길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알고 채점하자!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ㄴ-/-는-’,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어라’와 청유형 종결 어미 ‘-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와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러’ 등은 동사와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지. 또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고,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경우 동사에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 결합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도 참고해!

9. ④

㉔(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 결합한 관형절 ‘내가 늘 쉬던’으로, 안은문장에서 명사 ‘공원’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문장인 ‘내가 늘 공원에서 쉬었다.’에서 안은문장과 동일한 성분인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된 채 안긴문장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㉔(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에서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 ‘자식이 건강하기로’,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자식이 건강하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② ㉔(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에서 안긴문장은 ‘-이’가 결합한 부사절 ‘연락도 없이’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 ‘안 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연락도 없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③ ㉔(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에서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명사절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때 원래 문장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⑤ ㉔(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절 ‘아주 어려운’으로, 안은문장에서 명사 ‘과제’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래 문장인 ‘과제가 아주 어렵다.’에서 주어 ‘과제가’가 생략된 채 안긴문장으로 쓰인 것이다.